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 286-9206)
<http://www.jthink.kr>

- 문의 : 문화관광연구부 최윤규 부연구위원
(063-280-7180)
- 담당실장 : 김보국 기획조정실장
(063-280-7161)

보도시점 : 2017년 2월 21일(화) 12시부터

급변하는 정치 경제 환경, 위기를 기회로 전북대, 전북연, 전북도 4차산업 혁명과 전북 몫 찾기 세미나

- 전북대 상과대학과 전북도, 전북연구원이 4차 산업혁명과 조기대선으로 급변하는 정치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전북 미래 성장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.
- 전북대 상과대학과 전북연구원, 전북도는 21일 상과대학에서 '4차 산업혁명 시대 전라북도 경제발전 전략과 전북 몫 찾기' 산학관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.
- 이날 세미나 1주제에서 전북대 엄영숙 교수는 "농업 비중이 높은 전북의 여건을 감안할 때 4차 산업혁명과 농업관련 가치사슬을 연계해야 한다"고 밝혔다.
- 이어서 발표에 나선 박상준 교수는 "전북 빅데이터 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해 빅데이터 인력양성과 창업 인프라 구축, 장단기 빅데이터 산업 육성정책 수립이 필요하다"고 주장했다.
- 1주제 마지막 발표자인 최남석 교수는 "한미 FTA 재협상과 미·중 무역전쟁은 전북지역 자동차, 기계, 섬유 산업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"며 "수출국과 납품선, 수출 상품 등 다변화 전략"을 제시했다.

- 2번째 주제인 '전북 뭇 찾기'에서 나종우 전북문화원연합회장은 “농업사회에서 전북은 자주성을 정체성으로 지켜왔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렸다”며 “원래의 정체성을 찾아 정치권과 경제계 등 모든 분야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”고 단합을 강조했다.
- 마지막 발표에 나서 전북연 최윤규 부연구위원은 “세계적 정치철학자인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소수집단 우대정책의 근거로 격차 바로잡기, 과거의 잘못 보상하기, 다양성 증대를 제시했다”며 “전북 뭇 찾기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잘못된 과거에 대한 격차 바로잡기”라고 밝혔다.
- 이남호 총장은 “전북 발전에 대한 아젠다 및 구체적인 전략을 개발하고, 공정한 전북 뭇을 찾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”고 취지를 밝혔다.
- 전북연 강현직 원장은 “전북 뭇 찾기는 국가 통합적 관리 차원에서 과거 불이익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로 가치를 존중하는 인식과 실천이다”고 밝혔다.

※ 붙임 : 세미나 계획서
발표문 5부